

엘에이 교회 성경읽기와 아침부흥: 갈라디아서 - 1주

하나님의 아들과 대립되는 사람의 종교

갈라디아서 1장

- I. “(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며,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) 사도가 된 나 바울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합니다.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.” - 갈 1:1-3.
 - A.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가진 종교와 대치되는 그리스도를 계시한다.
 - B.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있던 많은 신약의 신자들이 낡은 유대종교로 되돌아가, 할례 의식과 함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. 이것이 바울에게 이 놀라운 책을 쓸 기회를 준 배경이었다.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에, 바울은 이 서신을 쓸 부담을 가진 것이다.
- II. “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,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이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 내시려고, 우리의 죄들 때문에 자신을 내주셨습니다.” - 갈 1:4.
 - A. “이 악한 시대”는 종교적인 세상, 세상의 종교적 흐름, 유대 종교를 가리킨다. 여기에서 사도는,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의 목적이 이 악한 시대인 유대 종교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고 끌어내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.
 - B. 우리는 1장 4절을 갈라디아의 믿는 자들에게뿐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 안의 믿는이들에게도 적용시켜야 한다.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종교적인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.
- III. “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을 그렇게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.” - 갈 1:6.
 - A. 바울의 서신들은 거룩한 계시를 완전케 할 뿐 아니라,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계시의 심장부를 이룬다. 그러므로 바울의 복음은 완성의 복음일 뿐 아니라 신약의 계시의 중심이기도 하다. 이러한 이유로, 바울의 복음은 기본적인 복음이다.
 - B. 복음의 많은 중요한 점들이 바울의 글에서만 발견된다.
 - C. 바울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(1:6). 은혜는 아버지, 아들, 성령이신 삼일 하나님이 우리의 누림이 되기 위하여 과정을 거치신 것이다.
- IV. “그러나 나를 모태에서부터 따로 분별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하도록 하시려고,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...” - 갈 1:15-16상.

- A. 하나님 아버지의 체현이자 표현인 하나님의 아들(요 1:18, 14:9-11, 히 1:3)이 우리의 생명이다(요 10:10, 요일 5:12, 골 3:4).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우리가 그를 알고 그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임으로(요 17:3, 3:16)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(요 1:12, 갈 4:5-6) 그분의 아들을 우리 안에 계시하시는 것이다.
- B.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 살아 있는 인격이 사람의 종교와 대치된다는 것이다.
- C. 우리는 어떤 다른 것보다, 심지어 교회 생활보다도 이 살아 있는 인격에 주의하도록 기도해야 한다. 교회 생활의 실제와 내용으로서 이 살아 있는 인격이 없다면 교회 생활까지도 전통이 되고 말 것이다.
- V. “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. “주님,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. 주님께서 원하시면, 내가 여기에다 장막 셋을 짓겠습니다.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,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,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.”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, 보아라,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. “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,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!” - 마 17:4-5.
- A.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종교나 전통이 없고 오직 그의 아들의 산 인격만이 있음을 가리킨다.
- B.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나 전통을 좋아하지만, 살아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좋아하지 않는다.
- VI. “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,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” - 고후 4:4.
- A. 살아 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는 영적이고 비밀한 분이다. 그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, 어떤 사람도 이 살아 있는 인격을 볼 수 없다.
- B.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은 야만적이건 최고의 문명인이건 이 시대의 신에 의해 눈멀어 있다... 이것은 오늘날 예배당이나 성당이나 교파 건물에 가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.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는 거의 없고,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막는 베일로 덮여 있다.
- C.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. 『주여, 나는 당신이 이 시대의 신을 폐하시기를 의뢰합니다. 나는 당신 외의 어떤 것도 경배하지 않습니다. 주여, 내 마음을 당신께 돌이키고 나의 모든 관념을 내려 놓습니다. 나는 당신 외의 누구도 경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.』 당신이 이렇게 간구한다면, 빛이 비칠 것이고 계시를 받게 될 것이다.

이번 주에 누릴 찬송

- 찬송가 399장 - 내 안에 주 계시하길
- 찬송가 394장 - 축복 구하던 나
- 찬송가 1098장 -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
- 영어찬송가 599장 - Lord, I was blind; I could not see (내 눈 멀어 못 보았네)

1월 13일 월요일

기도로 말씀 읽기:

갈 1:1-3 (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며,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) 사도가 된 나 바울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합니다.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.

오늘의 읽기/듣기: 갈 1:1-3 각주와 함께 / 갈라디아서 라이프스타디 메시지 1

1월 14일 화요일

기도로 말씀 읽기:

갈 1:4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,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이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 내시려고, 우리의 죄들 때문에 자신을 내주셨습니다.

요 10:3, 16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,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으니,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갑니다... 또 나에게는 이 우리에게 들어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. 내가 그들도 이끌어 와야 합니다.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입니다.

오늘의 읽기/듣기: 갈 1:4-5 각주와 함께 / 요한복음 라이프스타디 메시지 22번

1월 15일 수요일

기도로 말씀 읽기:

갈 1:6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을 그렇게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.

요 1:17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, 은혜와 실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.

오늘의 읽기/듣기: 갈 1:6-12 각주와 함께 / 갈라디아서 라이프스타디 메시지 2

1월 16일 목요일

기도로 말씀 읽기:

갈 1:15-16상 그러나 나를 모태에서부터 따로 분별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하도록 하시려고,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...

오늘의 읽기/듣기: 갈 1:13-16 각주와 함께 / 갈라디아서 라이프스타디 메시지 3

1월 17일 금요일

기도로 말씀 읽기:

마 17:4-5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. “주님,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. 주님께서 원하시면, 내가 여기에다 장막 셋을 짓겠습니다.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,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,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.”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, 보아라,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. “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,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!”

오늘의 읽기/듣기: 갈 1:17-24 각주와 함께 / 마태복음 라이프스타디 메시지 49

1월 18일 토요일

기도로 말씀 읽기:

고후 3:15-18 사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너울이 그들의 마음에 덮여 있습니다.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,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.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.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.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.

고후 4:4 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,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

오늘의 듣기: 갈라디아서 라이프스타디 메시지 4